

법정 스님의 말빛, 무슨 뜻일까

# 집착 버리라는 간곡한 가르침

“그동안 풀어 놓 말빛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주십시오.”

3월 17일 유언이 공개된 이후 무소유 법정 스님의 ‘말빛’으로 만들어진 책을 ‘소유’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책 절판을 둘러싸고 출판사, 스님의 저작권을 상속한 ‘맑고 향기롭게’, 독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 김자경 기획실장은 “스님의 재산은 몇 가지 소지품과 저작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안다. ‘맑고향기롭게’에 저작권을 비롯한 가진 것 전부를 주라고 한 것도 유언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맑고향기롭게 윤정광 이사는 3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스님의 유지를 존중해 모든 출판사에서는 출판물 일체를 출간하지 말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며 “법정 스님 책이 풀릴 때 독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책 출판에 대해서는

“스님의 유지를 따를 것”이라며 “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스님의 글을 누구나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판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내릴 사안”이라고 전했다.

김상사 주지 덕현 스님은 책 절판에 대해 “입적 후에 저작권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우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류시화 시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출판사 발행인들은 스님과의 인연이 각별했던 분들이다. 이의과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로 오해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법정 스님의 책을 내는 출판사는 범우사, 샘터, 문학의숲, 이레, 조화로운삶, 동쪽나라 등 6곳이다. 출판사 측은 스님의 유지를 따르는데 뜻을 모으고 있지만 생전 스님이 출판에 대한 뜻을 전하지 않은 것에 난감해 하고 있다. <아름다운 마무리>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 <일기일화> 등을 출판한 문학의숲이 내는 스님의 책들은 제

약기간이 2018~2019년까지다. 출간을 앞둔 미발표 책도 있다. 문학의숲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계약을 맺을 당시 스님께서 ‘책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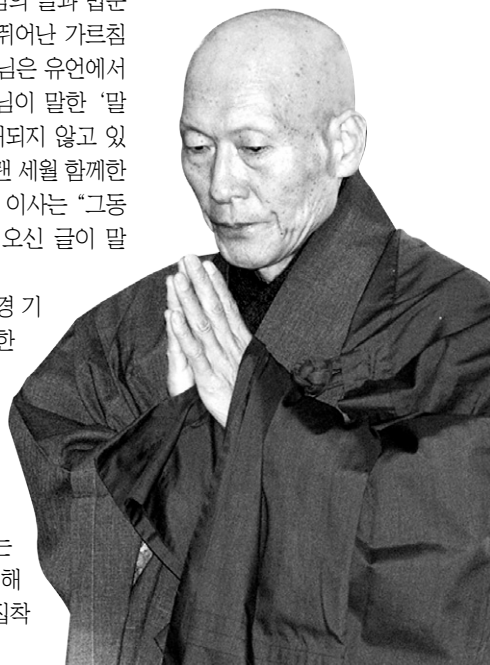
법정 스님은 탁월한 문장가였고 명쾌한 법사였다. 스님의 글과 법문은 증생을 일깨우는 뛰어난 가르침이었다. 이를 법정 스님은 유언에서 ‘말빛’이라 했다. 스님이 말한 ‘말빛’의 뜻은 쉽게 이해되지 않고 있다. 스님의 곁에서 오랜 세월 함께한 맑고향기롭게 윤정광 이사는 “그동안 풀었던 법문과 써오신 글이 말빛”이라고 했다.

맑고향기롭게 김자경 기획실장은 “스님이 말한 말빛이라는 것이 짐작은 가지만 큰 스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법정 스님은 떠나는 길에서 ‘말’로부터의 해탈을, 증생들에게도 집착

을 버리라는 간곡한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책을 무소유해 진정한 무소유를 배울 지, 책을 읽고 무소유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 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법정 스님 유언장 전문

## 인연에 감사... 성불하십시오

#상좌를 보이라

1. 인연이 있어 신뢰와 믿음으로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한다. 괴팍한 나의 성품으로 남긴 상처들을 마지막 여행길에 모두 거두어 가려하니 무심한 강물에 흘려 보내주면 고맙겠다. 모두들 스스로 깨달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거들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미안한 마음 그지 없다. 내가 떠나더라도 마음 속에 있는 스승을 따라 청정 수행에 매진하여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드러내기 바란다.

2. 덕조는 망상좌로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결계중에는 제방선원에서, 해계중에는 불일암에서 10년간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한 후 사제들로부터 말사형으로 존중을 받으면서 사제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3. 덕인, 덕문, 덕현, 덕은, 덕진과 덕일 은 덕조가 말사형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수행을 마칠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신

의와 예의로 서로 존중하고 합심하여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이루고 수행하기 바란다.

4. 덕진은 머리맡에 남아 있는 책을 나에게 신문을 배달한 사람

하지도 말며,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고, 편리하고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지체없이 평소의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하여 주시기 바란다.

2010.2.24 법정(속명 박재철)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

#남기는 말

1.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탓으로 제가 저지른 허물은 앞으로 계속 참회하겠습니다.

2.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모두 ‘(사)맑고향기롭게’에 주어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동안 풀어 놓 말 빛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주십시오.

3.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2010.2.24 법정(속명 박재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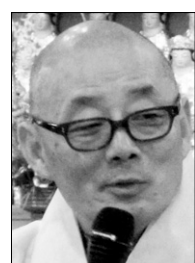
3월 17일 김상사에서 공개된 법정 스님의 유언장.

에게 전하여 주면 고맙겠다. 5. 내가 떠나는 경우, 내 이름으로 번거롭고 부질없는 겉은 의식을 행하지 말고, 사리를 찾으려고

# 명진 스님 “봉은사 직영 지정은 무리수”

## 총무원 대응 자제 속 징계론도... 재가연대 토론회 제언

조계종 총무원의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을 주지 명진 스님(사진)이 거부방침을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스님은 3월 14일 일요일에 이어 17일 봉은사 제2차 사찰확대운영회의에서 주지직 거래 의혹, 자승 스님과의 대담 내용 공개, 정치권 외압설 등을 제기하며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은 부당하다. 법정 스님 추모 분위기를 틈탄 총무원의 무리수”라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명진 스님

봉은사(주지 명진)는 “3월 14일 경내 법당에서 1100여 신도 및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일요일에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 명진 주지스님은 <전심법>에 관한 법문을 대신해 며칠 전 입적한 법정 스님을 추모하고, 총무원의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직영사찰)

지정에 대해 총무원 측에 봉은사 사부대중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할 것을 공개 요구했다”고 밝혔다.

명진 스님의 주장은 17일 봉은사 법당에서 열린 제2차 사찰확대운영회의에서도 계속됐다. 스님은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은 중회 통과일 6번째 안건이었지만 법정 스님의 입적으로 다른 안건을 이월시키고 봉은사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며 “이는 추모 분위기로 봉은사 측에서 함부로 반발하지 않을거란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봉은사를 직영사찰

로 지정하려면 특별분담사찰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현재 봉은사는 특별분담직영사찰이 된 셈”이라며 “무리해서 직영사찰을 지정하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외압설 등을 거듭 제기했다.

명진 스님의 강경한 발언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측은 “봉은사를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묵비대처한다는 원칙 속에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또, 이미 중앙총회 동의까지 끝난 사안을 갖고 물의를 빚는 명진 스님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총무원의 묵비대처에 빚낸 조심스러운 대응은 신도회를 비롯한 봉은사 대중의 명진 스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송진 봉은사 신도회장은 운영회에서 “직영사찰건은 언젠가는 다칠 일이었다. 명진 스님 같이 훌륭한 분이 주지로 계시는 때 이런 일이 닥쳐오려 다행이다. 어려운 화두지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다. 또, 봉은사 홈페이지에는 명진 스님을 지지하는 신도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대표 김경선, 이하 재가연대)는 3월 18일 조계사 다실 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은사 직영 사찰지정에 무대응인 총무원과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는 명진 스님을 비롯한 봉은사 측 모두 전 종도에게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상호화합의 분위기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 당선무효소송 답변 준비중

## 멸빈 회부... 징계 부당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당선무효 소송에 대해 총무원은 현재 종단변호사를 중심으로 법원에 제출할 답변을 준비 중이다. 또, 호법부(부장 덕문)는 소송을 제기한 진안 금당사 성호 스님을 ‘멸빈’ 취지로 초심회계에 징계 회부했다.

조계종 기획국장 만당 스님은 3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종단 변호사가 외부 변호사와 함께 답변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호법부 공승관 팀장은 “성호 스님이 원장 스님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출한 것은 종단 교권과 법률을 침해한 것으로 멸빈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호 스님은 “승적에 손대면 승려 아니다. 이번 당선무효소송 제기는 승람 도독질을 바로 잡는 제2의 정화”라면서 “이번 소송은 사

람끼리) 다툼은 필요 없다. (서류로 답변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징계 회부된 것에 대해 성호 스님은 “이번 소송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사회법에 제소했다고 해서 나를 징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승관 팀장은 “선거 등 종단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피선된 총무원장의 당선 무효 소송을 주장하는 것은 종단 절차를 부인하고 종단 구성원에게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호 스님이 “3월 4일 열린 초심회계원 제(6)차 심판부에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호법부 측은 “성호 스님은 최근 본인 고소와 관련해 종로경찰서까지 찾아와 조사받은 정도 있다. 건강을 이유로 서울까지 올 수 없어 초심회계에 불출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조계사 세민 스님 퇴진 토진 스님 22일 임명장

서울 조계사 주지(재산관리인) 세민 스님은 3월 17일 총무원에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18일 오전 총무원 총무부와 재산관리인직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했다.

19일 현재, 내정된 후임 재산관리인은 현 부주지인 토진 스님으로 22일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6일 조계사 신도회(회장 이대각삼)는 초하루법회 중 ‘조계사 주지스님 퇴진관련 신도회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해, 한때 총무원과 조계사 신도회간의 불협화음이 감지되기도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8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사 신도회 임원단과 만나 조계사 관련 사업 진행에 있어 신도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뜻을 전했다.

이날 신도회는 “총본산 성역화와 조계사 운영에 공심을 갖고 소임을 맡아주실 분이려면 누구라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경인년 桐華寺 주지선거에 즈음하여 사부대중에게 드리는 글

불조혜명(佛祖慧明)의 법음이 서린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는 영산 팔공의 준령아래 대구광역시와 고령, 청도, 칠곡, 성주의 4개군 180만 불자가 청정한 신심으로 법화(法華)를 꽃 피우고 있는 한국불교의 궁지와 자존어린 교구이다.

이러한 제9교구에서 금년 4월에 실시되는 동화사 주지 선거에 즈음하여 연담·고송문도 원로들 비롯한 교구내 원로들은 지역과 교구의 종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의(法意)로서 간곡히 유시하는 바이다.

한국불교의 장자중단인 우리 조계종은 1994년 개혁중단의 출범과 함께 실시된 각종선거로 인한 병리와 폐해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우리가 속해있는 제9교구는 지난 세번의 주지선거를 통해 타 교구보다 그 정도가 심해 지역승단은 크게 분열되어 있고 선거후유는 심각한 도를 넘어 있다. 승려간의 법계가 무시돼 승단의 질서가 흔들리고 선거집단간에 야기되는 반목과 질서는 수미산 만한 골을 지어 수행자의 본분마저 위협하고 있다. 삼보정체의 유실은 물론 출가정신마저도 병들게 하고 있어 더 이상은 좌시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중단차원에서 공청회 등의 뜻있는 노력들이 있었으나 아직은 문제의식 속에서만 있다. 현행 선거제도하에서 4월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예견되는 비불교적이고 반승가적 행태에 대해 우리 원로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제9교구내 지역과 연담·고송 양대문종의 원로들은 정좌속에서 스님들을 비롯한 교구내의 모든 사부대중들께 다음과 같은 간곡한 법의(法意)를 드린다.

- 화합승단과 청정교구를 위해 금년 동화사 주지는 연담·고송 양대문종을 비롯한 제 문종 및 지역불교계가 육화(六和)의 정신위에서 정선없이 산중유방식으로 추대할 것 엄원한다.
- 이를 위해 우리 교구원로들도 위법망구의 원력으로 합심어린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의 모든 사부대중이 일심(一心)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
- 우리 원로들은 지난 3월 1일 송림사에서 개최된 연담문도 문중회의에서 금년 4월 동화사 주지선거에 대응적 차원에서 단일후보로 고송문도 법광스님을 지명하고 의결한 것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 이에 금일 교구원로모임은 지난 연담문도 문중회의의 의결을 법열로 환영하며 그 소중한 뜻이 공포됨을 경하해 마지 않는다.
- 부디 연담·고송 양문종 문도들을 비롯한 교구내의 모든 스님들은 양문종 단일후보인 법광스님이 산중공의에 의해 추대될 때까지 원행(原行)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지역불자들도 스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란다.
- 우리 원로들은 이 일련의 과정들이 여법히 회향되고 이를 통해 우리교구가 새로운 승가상을 확립하고 청정교구 화합교구의 초석을 다져 지역사회와 한국불교의 발전과 흥중에 기여하는 법연(法緣)으로 이어지길 삼보전에 정려히 축원드린다.

불기 2554년 3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제9교구 원로모임  
화산 도원 원명 진제 무공 지성 현근 경희 혜선